

인 사 말 씀

종단협의회 제51차 정기총회와 2015년도 제1차 이사회의 원만한 논의를 위해 참석해주신 회원종단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미년 새해도 어느덧 대지를 깨우는 봄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좋은 계절과 달리 우리사회는 여전히 매서운 추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청년실업, 사교육 부담, 저출산과 고령화 등 무거운 현실이 국민의 삶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 불교계에 시대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는 어떻게 부응 할 것인가 고민하게 합니다.

올해는 10년 만에 발표되는 종교인구 통계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불교인구 고령화와 젊은층의 감소는 불교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인입니다. 그러기에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우리의 역량을 적극 투여해야 할 것으로,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함께 이뤄져야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원장님들께서 이에 대한 각 종단의 여건하에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주신다면 불교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입니다.

또한, 광복 70주년의 해로, 국가적으로나 불교계에도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여러 노력을 모색하고 있으나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불교계가 남북의 화해와 교

류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체적 역할일 필요한 때입니다.

조계종에서는 평화통일 염원의 일환으로 5월에 세계의 종교계와 불교고승들을 초청하여 개최되는 <광복70년, 한반도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원종단도 초청예정이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6월에는 천태종 개산 70주년과 법연종의 국제고승법회, 10월에는 관음종 개산 50주년 등 여러 종단에서 의미 있는 행사들을 준비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 회원종단에서 많은 참여와 관심으로 모든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회향이 될 수 있길 기원 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결산보고와 사무총장 선출건 등 많은 안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화합하는 모습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첫 회의가 원만히 처리되도록 당부 드리며, 인사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